

III. 政策 課題

1. 最近 南北經協의 現狀과 課題

- 焦點: 金日成의 死亡이 南北交易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
- 展望: 최근 국제정세와 정부 對北政策의 변화로 南北經協은 활성화될 것임
- 課題: 南北經協의 내실화를 위해 南北韓간 협력적 의존관계 전환이 요구됨

-交易 推移:

-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88년 이래 꾸준한 성장을 보이다가 91년 이후에는 큰 증가없이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반출입이 이루어 지고 있음.
-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금속류, 농수산물, 위탁가공을 통한 섬유제품 등이며 반출의 대부분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임.

-金日成 死亡後 交易 動向:

- 7월중 남북교역 실적은 금액면에서 6월 대비 62.4%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16.3% 증가하여, 북한의 김일성 사망이 남북교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8월중 남북교역 실적은 금액면에서 7월 대비 71.3%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,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45.1%로 감소하였음. 이는 금괴, 아연괴 중심의 철강금속류 반입실적이 저조한 데 이유가 있음.
- 그러나 8월중 委託加工交易 실적은 반입금액(완제품)기준으로 7월에 비해 56.7% 증가하였으며, 금년도 8월까지의 실적은 전년도 실적의 2.6배에 달함.

<南北韓 交易 推移>

(단, 1000 달러)

	반 입		반 출		계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91	328	165,996	40	26,176	368	192,172
92	365	200,685	42	12,818	407	213,503
93	478	188,528	76	10,262	554	198,790
94.1~6	248	82,327	55	9,466	303	91,783
94. 7	48	19,611	5	912	53	20,523
94. 8	49	13,845	12	783	61	14,628

자료: 통일원, 월간 「남북교류협력 동향」

-展望:

- 최근 북미회담의 급속한 진전과 정부의 對北政策의 유연한 변화로 「核-經協 連繫」 정책이 단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.
- 이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,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할 전망이다.
- 단기적으로는 경공업 분야에서 委託加工貿易을 중심으로 발전하겠지만, 점차 관광, 자원개발,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투자가 이루어질 것임.
-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북교역 및 투자계획은 위탁가공을 탈피, 合作投資 事業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-向後 課題:

- 제한적인 남북경제교류가 실질적인 남북경협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됨.
- 남한은 북한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.
- 남북한 당국은 시간적 連續性을 가지고 남북한이 직접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.
- 남북한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協力的 依存關係로의 전환이 요구됨.

-現段階의 實質的인 措置:

- 우선 교역방식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돼야 함.
- 다음으로 교류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(清算去來方式, 相互投資 保障協定 등)를 마련해야 함.
- 대내적으로는 상호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거나 혹은 휴전선 지역에 무역상담소를 설치해 남북한의 경제인이 많이 만나도록 해야함.
- 대외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가 內國間 去來임을 인정받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.
- 委託加工交易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지도를 위한 남한 기술자의 방북과 산업설비의 반출이 허용되어야 함.

(이철순)